

# COVID-19를 맞이한 간호대학생의 적응 경험

임숙빈<sup>1</sup> · 최은희<sup>2</sup> · 이미영<sup>3</sup> · 홍나영<sup>4</sup> · 황두영<sup>4</sup> · 최윤비<sup>4</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sup>1</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sup>2</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sup>3</sup> 울지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생<sup>4</sup>

## Adjust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the Face of COVID-19

Sookbin, Im<sup>1</sup> · Eun-Hi Choi<sup>2</sup> · Miyoung Lee<sup>3</sup> · Na Young Hong<sup>4</sup> · Do Young Hwang<sup>4</sup> · Yun Bi Choi<sup>4</sup>

<sup>1</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up>3</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sup>4</sup>University Student,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just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in the face of COVID-19. **Methods:** The subjects were 4 focus groups consisting of a total of 20 participants, including 18 nursing students and 2 professors. From July to August 2020,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Results:** We identified 15 sub-themes and 4 themes. The 4 themes were sudden and new situation,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non-face-to-face contact, becoming in an unfamiliar life,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e new normal. **Conclusion:** Participants were experiencing difficult situations, accepting and recognizing them as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on how college students experiencing a crisis accept the situation and how they think about it, according to their major. In addition, since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research using another research method.

**Key Words:** New normal; COVID-19; Nursing students; Focus group interview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지구촌이 어느새 낯은 단어로 느껴질 만큼 세계가 복합적인 네트워크로 엮히는 이 시대에 경계(boundary)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에서 2019년 12월 처음 확인된 SARS-CoV-2 감염증은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게 하였고,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폭발적인 전염력은 위세가 대단하여 2020년 12월 1일 전세계 COVID-19 감염자는

6,180만 명 이상이고 사망자는 140만명 발생하였다[1]. 이러한 급격한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붕괴 위험[2], 경제적 악영향[3], 사회적 관계 위축 등 기존의 경제, 사회, 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에서의 COVID-19 관련 상황을 보면 2020년 1월 8일 COVID-19 유증상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점차 확산되다가 2월 18일에 31번째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후 접촉자 검사를 통해 3월 1일에는 3,150명으로 증가되었다[4]. 급격한 감염자의 증가로 인해 전국에 있는 학교의 수업 진행 여부에 대해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기를 거듭하였다[5]. COVID-19 중앙재난안

Corresponding author: Eun-Hi Choi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90 Gyeryong-ro, 771 Beon-gil, Jung-gu, Daejeon 34824, Korea.  
Tel: +82-42-259-1722, Fax: +82-42-259-1707, E-mail: choieh@eulji.ac.kr

- 이 연구는 2020년 울지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2020 Eulji University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grant funded.

Received: Dec 6, 2020 / Revised: Dec 16, 2020 / Accepted: Dec 16,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는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으로 개학하였고, 대학교 또한 조심스럽게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개강하였다.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원격수업 규제를 폐지하였고, 학교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6], 비대면수업이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대학교 수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실습 수업은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이러한 COVID-19 대응과 혼란에는 COVID-19 유행 속에서도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기저에 있기 때문이다[7]. 이전에 겪은 SARS나 MERS 등과 같은 감염병은 몇 달 내에 종식되어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고[8],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어 종식되었기 때문에, COVID-19 또한 일시적으로 유행했다가 오래지 않아 소강상태에 이르고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1년이 되도록 계속되는 가운데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은 많은 전공 교과목과 전공교과목 중에서도 교내 외 실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방역지침 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수, 학교, 의료기관 등의 입장차와 갈등을 경험하면서 의사결정과 불가피한 반복을 하게 되었다. COVID-19 유행 중에 이와 같은 갈등과 반복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된 대학생들은 불안과 공포라는 심리적 변화와 감염종식에 대한 기대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업운영의 변화를 경험하였다[9]. 그러나 COVID-19의 상황 속의 학업운영 변화에서 간호대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일찍이 Kuhn (1970)은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어난다고 하였다[10]. COVID-19 사태를 겪으면서 ‘뉴노멀’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뉴노멀’은 2004년 Roger McNamee이 David Diamond와의 공저 ‘The New Normal: Great Opportunities in a Time of Great Risk’에서 인터넷 시대의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와 새로운 가능성을 논하는 가운데 처음 사용하였다[11]. COVID-19 이후 뉴노멀 중 하나는 언택트(Untact) 문화의 일상화로 온라인 교육, 4차 혁명이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1].

연구자는 ‘COVID-19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학업운영 변화에 대해 간호대학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질적연구방법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문제에 대해 현상을 깊이 발견하는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의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는 접근

이다[12].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특히 간호학생으로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고 COVID-19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생활과 간호학생으로서의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모집과 윤리적 고려

연구참여자는 일 간호대학의 학생들로 학년별로 그룹을 형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학년 5명, 3학년 8명, 4학년 5명, 교수 2인 총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기가 종료한 후 2020년 7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를 제공하고, 그 학생이 다시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편의표집방식에 의하여 정하였다. 대상자는 간호학 전공과목과 교내 외 실습을 경험한 2학년, 3학년, 4학년을 중심으로 하였다.

인터뷰 시작 시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이 된다는 것과 연구참여에 대한 최소 위험성과 이득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참여자에게 자료수집에 대한 답례품 제공으로 소정의 사례를 하였다.

### 3. 자료수집

참여자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고려하고, 참여자의 시간을 배분하여 4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학년별로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1그룹에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까지 배치하였고, 면담 시간은 그룹별 약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한 질문마다 참가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동일하게 주고, 충분히 답할 시간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장소는 대학교 회의실을 이용하여 원탁의 탁자에 둘러싸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인터뷰에 참여하기 전 연구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인터뷰 3일 전에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대학생활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실제 간호학생으로서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COVID-19로 경험한 간호학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COVID-19 상황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이었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가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1학기 대학생활은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점차 준비된 질문을 묻고, 표현된 응답을 근거로 다른 참여자에게 생각을 다시 들어가면서 보다 깊이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인터뷰 중간 참여자의 표정이나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 사항들을 따로 메모하였다. 인터뷰는 공통적 의미 진술이 발견되고 더 이상 새로운 범주가 발견되지 않는 포화상황에서 종료하였다.

#### 4. 자료분석

자료 코딩은 인터뷰 당시 기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직후부터 녹음된 자료를 들으며 참여자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는 인터뷰 당시 참여한 주진행자 1인의 디브리핑 노트를 통해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총 45페이지의 필사한 자료가 나왔다. 수집한 자료는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13].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한 후 주의 깊게 보면서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한다. 의미 있는 진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주제, 하위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하였다[13]. 이 과정을 간호대학 교수 2인과 함께 논의하면서 합의과정을 거쳐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확인하였다.

#### 5.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Creswell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Creswell은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여 타당도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기술한 결과들의 정확성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타당성이라고 하였다[14].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전임 교수이므로 이

런 경력이 자료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정리한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객관적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시 분석한 내용을 참여자들이 점검하고 확인하게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신뢰도는 다양한 코딩에 대한 반응이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14].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참여와 관찰, 확실한 증거 확보, 동료 검토, 연구자의 편견(bias)의 명확화, 참여자의 견해 요청, 외부의 자문이 평가라고 하였다. 인터뷰 후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받았으며, 자료를 필사 후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총체적으로 다시 읽고 분석하면서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 간에 정규적으로 만나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면서 코딩과 코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제와 하위주제가 일관적인지를 살펴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연구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자료분석결과 4개의 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는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비접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익숙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뉴노멀로의 도전으로 총 4개이었다. 핵심주제는 ‘난데없이 겪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 속에서 뉴노멀에 도전하는 되어감’이었다(Table 1).

#### 1.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참여자들은 개강하게 되면 캠퍼스에 가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과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던 감염상황이 발생하고 퍼지는 바람에, 난데없이 등교를 제한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1) 닫혀버린 캠퍼스

개강과 동시에 캠퍼스가 닫혀버렸다고 하였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되는데 캠퍼스는 방역과 동시에 도서관, 이용시설이 문을 닫아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방황을 해야 했다고 하였다.

대면 비대면 차이가 저는 실제로 학교 왔다갔다 하는 그 차이인데 이번에는 도서관도 문을 닫고 이용시설이 다 문을 닫아서 공부하는 장소에 되게 제한이 많고 카페나 공부할 데 찾고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Table 1.** Adjustment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o COVID-19

(Core theme: Challenging the New Normal in the midst of new daily changes that we experience all of a sudden)

Theme	Subtheme
Sudden and new sit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sed campus</li> <li>· Information confusion</li> <li>· New learning method prepared in a rush</li> </ul>
Changes in daily life due to non-face-to-face cont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ken expectations</li> <li>· Becoming intimidated and stiff</li> <li>· Changes in social interaction</li> <li>· Difficulty of exposing self</li> </ul>
Becoming in an unaccustomed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gret about limited self-expression</li> <li>· Unexpected relaxation</li> <li>· Effort as a student of nursing major</li> <li>· Gratitude toward social contacts</li> </ul>
Leap to new norm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fection crisis experienced already</li> <li>· Mind training for the era of non-face-to-face contact</li> <li>·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lf-directed learning</li> <li>· Re-acknowledging the "we" in consciousness</li> </ul>

**2) 정보의 혼란**

참여자는 공지가 올라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뀌니, 개강, 수업, 시험 등 행동 지침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하였다.

공지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하는 게 공지글 읽은 이야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참여자 6)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온라인으로 본다, 아니다 나와서 시험을 본다 이런 게 되게 혼란스러워서 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도 있어요.(참여자 10)

**3) 서둘러 준비한 새로운 수업 방식**

수업 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면 변경이 되었는데,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라 온라인에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일단 적응 안 되는 시스템, 모두에게 다 새로운 시스템이었을 텐데 그 시스템 적응해 나가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과목들도 있고.(참여자 4)

처음에 이제 또 막 70 몇 명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막 갑자기 안 들어온 사람들, 못 들어와서 수업을 도중에 또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와서 놓쳐 가지고 야, 이거 뭐였

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참여자 9)

**2. 비접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비접촉은 대학생활의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개인을 고립에도 빠지게 했으며, 서로 간의 상호교류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 무너진 기대감**

COVID-19는 대학 생활의 많은 기대감을 무너뜨리게 하였다고 하였다. 자신의 가운입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후배가 없다는 것, 교외 활동, 체육활동, 포레 모임, 소속감 이런 기대감이 무너졌다고 하였다.

작년에는 대면이어서 학교 돌아다니면 선배님들 가운 입고 실습하는 거 보면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내가 입고 후배들이 나를 보겠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1학년들이 없고 2학년들만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참여자 5)

교외활동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전면적으로 전부 다 취소돼서 못하게 된 부분이 아쉬움이 너무 커요. 체육대회하고 축제하고 그것도 다 못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모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지, 대학교를 온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참여자 16)

## 2) 위축되고 굳어지는 자기

상호교류가 단절되면서 집에만 있어서 자신이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피폐해지면서 자신이 굳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였다.

집에 자꾸 있으니까 더 나태해지는 것 같고 핸드폰도 질리고 정말 밖에 안 나가니까 정말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멘탈도 부스러지는 느낌.(참여자 7)

혼자만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다보니까 사람이 약간 피폐해지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인간관계도 너무 축소된 상태에서 지내고, 삶이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참여자 4)

## 3) 상호교류의 변화

비접촉 수업방식은 교수와 학생들간에 상호교류, 학생과 학생간에 상호교류를 변화시키었다. 특히, 대면 수업을 경험했던 기간이 길었던 학생들일수록 상호교류의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그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근데 말을 하고 싶으면 이거 마이크를 켜고 또 여러명이 마이크를 켜면 소리도 끊기고 하니까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싶긴 한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참여자 7)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000 수업을 들으면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르는 것을 서로 토의하고 상의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주도 학습면에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4)

## 4) 자기노출에 대한 어려움

비대면 상황에서 자기가 발표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을 알지 못하고, 뒷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나를 노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누군가한테 재량 친해지고 싶다 말을 걸어도 얘네가 다 지켜보고 있고. 저 못할 것 같아요.(참여자 6)

아무래도 중간에 말 하면 제가 화면에 딱 보이잖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참여자 9)

꼭 이렇게 한두 명씩 뒤에서 재네 왜저래 이런 애들이

꼭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막 불이익을 주고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잖아요.(참여자 10)

## 3. 익숙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COVID-19 상황은 익숙지 않은 생활이었고, 자기의 노력과 표현이 화상으로만 되어지는 아쉬움을 경험하였고, 뜻하지 않게 생긴 여유감, 간호학 전공자로서 노력, 그 속에서 사회적 접촉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 1) 새로움 속 자기표현의 아쉬움

비대면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때 상대방이 나의 화상 화면으로만 나를 만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AI에서 탈락시키고, 또 탈락시키고 하니까 화면으로만 날 보고 판단 한다는 것이..(참여자 18)

솔직히 줌으로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은 화면에 보이게 끄덕끄덕 하기랑 교수님이 가끔 한명씩 찍어서 질문할 때 00학생, 네~이런 거 밖에..(참여자 6)

OO회로써 활동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이 다 겹으로 보여 지지는 않으니까.(참여자 7)

### 2) 뜻하지 않게 생긴 여유

힘들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이동시간이 줄어서 그 시간에 여유와 휴식이 좀 더 생긴 것은 편하고 좋았다고 하였다.

지금 집에서 수업 듣는 거 이런 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더 좋았거든요. 왔다 갔다 안하고 그 시간에 더 한 글자 더 보고, 그 시간에 밥 먹어서 공부를 더 하고.(참여자 9)

집에서 바로 켜기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나가기 위한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수업이 9시 있으면 8시 50분 일어나도 되고 그런 면에서 정말 편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처음엔 실수 많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강의 진짜 편하다.(참여자 10)

### 3) 간호학 전공자로서 노력

간호학 전공자로서 나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는 것은 의료인

으로 자세가 아니라고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등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하였다.

간호학과 학생으로 알려졌다 너무 창피하잖아요? 학교에 얼굴을 못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학교 들락날락 하나까 만일에 제가 걸리면 학교 전체가 폐쇄되는 거 같아요.(참여자 10)

간호대학 학생이 마스크를 벗었다고 의료인이, 의료인의 자세가 안되니까.(참여자 7)

친구들이 놀자고 했는데 혹시 나 때문에 피해가 갈까봐 그거 다 뿌리치고 못 놀고 그냥 본가에서만 지내다가 왔거든요.(참여자 3)

#### 4) 사회적 접촉에 감사함

사회생활의 위축은 대면실습이 더욱 좋고, 교우관계도 더 친해지면서 사회적 접촉의 기회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초반에는 그냥 어려움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병원에 나가보니까 훨씬 나왔던 것 같고.(참여자 9)

병원 실습 나가보니까 교내실습이랑 그런 거랑 너무 체감하는 게 달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 대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실습할 때 실습조끼리 더 친해졌어요.(참여자 10)

#### 4. 뉴노멀로의 도전

COVID-19의 유행에서의 현재의 경험은 미래 자신이 책임을 저야할 미리 겪은 위기이고, 미래는 비대면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을 재인식하기 시작하였다.

##### 1) 미리 겪은 감염 위기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저야할 때를 대비하여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미래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라고 하였다.

전공을 경험해보고 대학생 때 관련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또 생기면 이전 경험을 가지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본게 더 좋은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잘 보내면 좋

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참여자 9)

실습 나가는 건 정말 좋았어요. 코로나를 겪어보는 그런 실습이라서. 저희가 간호사 입장에서 코로나를 이런 상황을 처음 겪었으면 당황했을 텐데... 학생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다 보니까 진짜 (미리) 경험하는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참여자 11)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면 사실 겪지 못할 경험이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그런 것을 미리 겪음으로써 미래를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참여자 8)

##### 2)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마음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는 비대면 상황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비대면으로 학생들과 회식도 하고 공부하고, 놀기도 하면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는 비대면으로 놀아가지고... 공부할 때 쳐놓고 하고 O으로 회식도 했어요.(참여자 6)

비대면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15)

요즘 젊은이들은 면대면으로 질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소통이 개네들은 훨씬 더 편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온라인 수업이 애네들과 좀 맞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9)

##### 3)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 인식

비대면 수업은 전달력이 대면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였다.

자율학습을 뭔가 좀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비대면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쪽에서 좀 더 능력이 향상된 것 같아요.(참여자 4)

수업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자기네 공부하다 궁금하다고 찍어서 보내면서 질문을 하는. 질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어져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는.(참여자 20)

##### 4) ‘우리’ 의식의 재인식

카드섹션과 같이 공동체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한두명 잘못하는 경우 카드섹션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 ‘특권’의 범

위가 공동체를 위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우리’라는 의식이 재인식되고 있었다.

그 카드섹션이 응원할 때 카드를 뒤집어서 예쁜 그림이나 문구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빠긋하거나 틀려버리면 그 그림이 망쳐지거나 글씨가 망쳐지기 마련인데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종식됐다 싶다가도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게 다시 재발되는 걸 생각하면 카드섹션처럼 그렇다고 생각해요.(참여자 5)

특권을 누리는 것의 범위는 다른 사람한테 자신이 피해를 끼치지 않는 만큼 자신의 특권을 누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특권을 누리겠다고 큰 피해를 주었으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의식을 갖는 게 시민의식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참여자 14)

## 는 의

본 연구는 COVID-19 대유행 속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의 적응과정의 경험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한 COVID-19 사태는 ‘난데없이 겪는 새로운 일상의 변화 속에서 뉴노멀에 도전하는 되어감’을 가져왔다. 이에 난데없이 겪는 새로움, 비접촉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익숙지 않은 생활 속에서 되어감, 뉴노멀로의 도전이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COVID-19 사태로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와 새로운 시스템을 경험하였다. 감염병으로 인하여 캠퍼스가 닫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방역지침과 관련해 학생, 학부모, 교수, 학교, 의료기관 등의 입장차와 갈등으로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수업체계에 따라야 했다. 비대면 수업 방식은 비접촉을 강조하는 방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면 시작되었기에[15] 교수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어려움이 컸다. Kang 등[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COVID-19로 인한 학업운영의 변화와 외출자제 등의 환경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하였다. Kim과 Chang 연구에서도 COVID-19 경험을 걸림돌, 가보지 않은 길,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표현하였다[16]. 연구참여자들은 비접촉 방역대책으로 인해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가 깨졌고, 상호교류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선배나 동기와의 관계와 지지가 대학 생활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 요인이므로[17], 캠퍼스가 폐쇄되는 상황은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게 하였다.

한편, 낯설기만한 비대면의 수업 방식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기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타인이 자신을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인식해서 아쉽다는 감정을 가지게 하였다. 자기노출이란 자기의 생각이나 가치, 느낌, 태도 및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자기노출을 통해 관계의 친밀성, 상대에 대한 존중, 진실과 정직성을 표현한다[18]. 그러므로 적절한 자기노출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19]. 자기노출의 두려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갖는 것은 Parse [20]가 인간되어감에서 말하는 패턴 선호(pattern preference)의 역설적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Jung [21]도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의 자기노출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 경험에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한 노력,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도록 사회적 지지를 해주면 어려움을 겪은 후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비접촉 대학생활에서 찾은 장점은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고, 짧게나마 사회적 접촉을 하게 될 때 이제까지는 인식하지 못하던 일상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비접촉 상황에서 어렵사리 대면으로 진행된 임상실습은 사회적 접촉의 기회가 되어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은 고마움, 기쁨 등이 포함하며 삶의 만족으로도 연결되는데[22],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위기상황 속에서 일상의 접촉에 대한 재인식을 통해 감사함을 배웠다.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으며 교육의 공간·시간적 제약이 해소된다[23]고 했어도 부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정도였는데, COVID-19 상황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말하는 교육방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대상자-간호사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는 간호와 간호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어떻게 진화해갈지 막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COVID-19 사태가 어떻게든 변화해야 함을 시급한 과제로 던져주었기에 이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해야 하겠다. 다시말해 COVID-19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시스템의 임계점을 넘는 시험대[24]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를 넘어야 한다. 뉴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나 표준을 일컫는 개념이다[17]. COVID-19 상황 속에서 비접촉과 비대면의 방식이 뉴노멀이 되었다. Kim [25]은 「뉴노멀의 철학」에서 현재 경험하는 상황을 ‘코로나 혁명’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끌어낸 상황이 아닐지라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끄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구참여자들이 COVID-19에 따른 경험을 간호사가 되어서 겪을 수 있는 미래의 감염 위기로 생각하고 미리 경험함으로써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는 생

각은 의미가 깊다. 이 점은 유사한 경험을 다른 전공의 대학생들과 달리 인식하는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특별한 점이다. 간호의 핵심개념은 돌봄이고[26],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상황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27], 참여자들이 COVID-19 사태를 미리 경험하는 간호 경험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정서지능, 행복감,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지지[27]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비접촉 시대의 간호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와 전략 도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조망에서 가르침은 알리는 것이고 학습은 목적이자이다. 하지만 Parse는 교수-학습을 공동창조되는 여정으로 보았다[20]. 학생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며 이를 자기 신념체계에 서 구체화하고 삶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갈 때 교수자는 배움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강화하는 의지로 변화하는 조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비접촉, 비대면의 새로운 경험 속에서도 뉴노멀 시대에 도전하는 되어감으로 성장하는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지지해야 하겠다. 간호대학생들이 미래의 주체로서 삶의, 간호의 의미를 찾아가도록 지지해야 하겠다.

##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대학 생활과 간호학생으로서의 느끼는 심리적 변화 및 적응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연구결과 4개의 주제와 15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속에서 비접촉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있었으며, 익숙지 않는 생활 속에서도 자신들의 간호경험을 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뉴노멀을 미리 경험하는 미래 준비의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며 뉴노멀 시대에 도전하며 되어감으로 자신들만의 배움과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향후 감염위기는 더 많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위기 경험을 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사유하는지 추후 연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연구방법을 진행하였지만 후속 연구는 다른 연구방법으로도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eekly epidemiological update - 1 December 2020. Data as received by WHO from national authorities, as of 29 November 2020, 10 am CET [Internet]. Geneva: Autor; 2020 [cited 2020 December 2].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weekly-epidemiological-update---1-december-2020>
2. Kang MG. Japan, 'Corona tertiary trend'... European crisis of 'medical collapse'. MBCNEWS. 2020 November 30. Sect;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2458\\_32531.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72458_32531.html)
3. Lee SS. KERI economic trends and prospects. Seou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20. p. 27-42.
4. Wikipedia. Corona 19 in South Korea [Internet]. Seoul: Autor; 2020 [cited 2020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s://ko.wikipedia.org/wiki/>
5.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ment of academic operation and support plan in education for corona 19 response [Internet]. Sejong: Autor; 2020 [cited 2020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boardID=294&m=020402&s=moe>
6. University News Network. From the postponement of the opening of the school to the first semester's remote classes...It's all about the first thing in history [Internet]. Seoul: Autor; 2020 [cited 2020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9992>
7. Song JB. Corona19, in the age of decalozation, through education of tolerance and solidarity. Journal of Education. 2020;1:8-18.
8. Kang DY, Min SH. Effects of epidemic infectious diseases on economy and industry - for past cases [Internet]. Sejong: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KIET), I-KIET; 2020 [cited 2020 December 1]. Available from: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6089](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9&state=view&idx=56089)
9. Kang JH, Bak AR, Han ST.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lifestyle change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0; 14(5):289-297. <https://doi.org/10.21184/jkeia.2020.7.14.5.289>
10. Kuhn T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 1-220.
11. Han D. The architecture in the 'New Normal' era.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2020;64(8):20-21.
12. Lee NI.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Paju: Hangilsa; 2014. p. 1-415.
13. Kim GB, Shin KR, Kim SS, Yoo EK, Kim NC, Park ES, et 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sa; 2005. p. 1-457.
14. Creswell JW.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Inc; 2007. p. 1-488.
15. Do J.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020;26(2):153-173.  
<https://doi.org/10.24159/joec.2020.26.2.153>
  16. Kim M, Chang D. Metaphor analysis of student-athletes' perception of COVID-19 experience. *Korean Society of Sport Psychology*. 2020;31(3):81-102.  
<https://doi.org/10.14385/KSSP.31.3.81>
  17. Song JY.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12): 335-345.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335>
  18. Jourard SM. *Self-disclosure: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transparent self*. New York: Wiley-Interscience; 1971. p. 1-248.
  19. Choi YJ, Lee GW, Jung CH, Lee AR.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09;18(2):186-196.
  20. Im S, Lee OJ, Kim S, Kang GY, Wi OY. *The humanbecoming paradigm: a transformational worldview*. Seoul: Hyunmoonsa; 2020. p. 1-238.
  21. Jung M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ntional rumin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posttraumatic growth.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14;15(1):415-430.
  22. Son S, Suh KH. Relationships between gratitude disposi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4;19(2):619-635.
  23. Joh JH.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focus on humanity edu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2019;13(2):75-89.  
<https://doi.org/10.18015/edumca.13.2.201908.75>
  24. Ko JK, Kim DY, Ye MJ, Choi M. Corona 19 crisis, new opportunities to solve the climate crisis. *Gyeonggi: GRI*; 2020. p. 1-52.
  25. Kim JY. *New normal's philosophy*. Seoul: Dongaia; 2020. p. 1-224.
  26. Hong SH.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 2011;50: 213-241.
  27. Kim H. Analysis of Korean nursing studies applied in interpersonal caring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20;27(2):116-128.  
<https://doi.org/10.7739/jkafn.2020.27.2.116>